

국민지원금 지급 한 달...추석대목 4일간 32% 썼다

광주은행 KJ카드 사용 내역 보니

1인당 25만원을 나눠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한 달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발급액의 45% 가량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대목 나흘 동안에는 전체 결제액의 32%가 몰렸고, 주로 동네슈퍼와 식료품, 음식점 등에서 요긴하게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 KJ카드(신용·체크) 포인트 충전방식과 지역사랑상품권인 '광주 상생카드'(선불카드·사진)로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 5일 기준 29만8000명 분에 달하는 74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 동안 광주은행 카드로

사용 금액 336억8040만원

1인당 4.3회...전당 2만6300원
동네 마트 28% 가장 많이 이용
음료·식품·음식점 두번째 많아
전당 금액 학원·가구 등 많아

사용한 지원금은 336억8040만원으로, 발급액의 45.2%에 달했다.

총 이용 건수는 128만78회로, 한 달 동안 1인당 4.3회 가량 카드를 긁은 셈이다. 한 건 당 이용금액은 2만6300원 가량이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40대(3만9625명) 1건당 평균



이용금액이 2만6700원 정도를 사용하며 가장 많았다.

30대(2만2098명)가 2만6000원으로 뒤를 이었고 ▲80대(6861명) 2만5600원 ▲70대(1만6846명) 2만5400원 ▲50대(2만3474명) 2만3900원 ▲60대(1만8008명) 2만3800원 ▲20대(7208명) 2만2300원 ▲14-19세(856명) 1만97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 광주시민들이 가장 국민지원금을 많이 사용한 날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18일로, 이날 하루 10만5516회에 걸쳐 34억9000만원을 썼다.

18일에 이어 17일이 33억7600만원(10만4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추석 대목인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광주카드를 통해 사용한 지원금은 모두 112억3500만원으로, 한 달 사용액의 32.4%를 차지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65% 가량이 동네 슈퍼마켓과 식료품, 음식점에서 쓰였다.

업종별 이용액을 살펴보면 전체의 28.6%인 96억3500만원은 슈퍼·마트를 포함한 '유통업 영리' 부문에 집중됐다. 음료·식품이 79억9000만원(23.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일반·휴게음식점 42억2600만원(12.5%) ▲약국 14억9400만원(4.4%) ▲연료 판매점 14억9000만원(4.2%) ▲의료 11억2100만원(3.3%) ▲유통업 비영리 10억1500만원

(3.0%) ▲보건위생 10억1300만원(3.0%) ▲의료 9억1000만원(2.7%)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 1건당 이용금액으로는 학원 부문이 17만7900원(29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15만5900원)와 여행(10만6800원) 부문은 결제 건수가 각각 1155건, 25건에 불과했지만 한 차례당 '쏟아짐'이 비교적 컸다.

전기제품(10만800원·2660건)과 자동차 정비·유지(9만1800원·3370건), 레저용품(7만9000원·9781건), 건강식품(7만7400원·2532건), 회원제 형태입소(7만6000원·1607건) 등 평소엔 큰 쓰기가 망설여졌던 부문에서도 평균 결제금액(2만6300원)을 크게 웃도는 돈을 사용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광주은행 카드 가맹점 9만 곳 가운데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영세 사업장은 67.3% 비중을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준금리 동결

한은 0.75% 유지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진단한 만큼, 다음 달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등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석유류 제외)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백화점 전기 온열장판 할인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8층 '휴표휴침대' 매장에서 활동가 들어간 전기 온열장판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일부 품목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삼성전자 10개월만에 6만원대...주가 3.5% 급락

올해 '10만 전자'를 내다봤던 삼성전자 주가가 12일 7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50% 하락한 6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6만8700원(-3.92%)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 7만원을 밑돈 건 지난해 12월3일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날 외국인인 삼성전자 주식을 7633억원, 기관은 98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8430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월11일 장중 최고치인 9만6800원까지 찍었다. 하지만 D램 가격 하락 전망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이 지난달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은 1826억원 상당으로, 전달(5061억원)에 비해 63.9%(-3235억원)나 급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92포인트(1.35%) 내린 2916.3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96포인트(1.36%) 내린 940.15에 마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 25% 급감

한 달새 3조원 넘게 줄어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이 전달보다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헝다그룹 부도 위기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세가 지역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9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주식거래대금은 전달보다 25.4% 급감했다.

지난 8월 12조5887억원이었던 광주·전남 거래대금은 9조3911억원으로 한 달 새 3조원 가량 줄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은 전달보다 29.6% 감소했고, 코스닥도 19.5%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전남 거래대금 비중은 2.00%에서 1.81%로, 0.19%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거래대금 역시 630조6014억원에서 517조7753억원으로 17.9%(-113조원) 감소했다.

김중은 광주사무소장은 "헝다그룹 부도위기와 미국채금리 재급등,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도달 등으로 촉발한 경제 불안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하락 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상장기업 39곳의 시가

총액은 전달보다 3.0%(-7724억원) 감소한 25조144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3322억원(-1.5%), 코스닥은 무려 4402억원(-11.4%)이 사라졌다.

코스피 종목별로 세화아이엠씨가 전신인 다이나믹디자인이 94억원(-10.1%), 대주주가 바뀐 광주신세계 200억원(-6.0%), 금호타이어 1149억원(-6.8%) 등 시총이 줄었다. 한국전력 시총은 2899억원(-1.8%)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한그린파워(-1101억원), 피피아이(-120억원), 대신정보통신(-219억원) 등 전체 19개 종목에서 15개 종목의 시총이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16.38 (-39.92)
↓ 코스닥	940.15 (-12.96)
↑ 금리(국고채 3년)	1.815 (+0.114)
↑ 환율(USD)	1198.80 (+4.20)

전남신보 고객만족도

전남도 출연기관 중 1위

전남신보보존재단이 전남도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0.93점으로 15개 출연기관 중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간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남신보는 '기관지지 만족도'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93.53점을 받았다.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보증 및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